

2013 봄(숙소)호 #97
장애물 헐기
모두 속했고 모두 봉사합니다.

북 미주 개혁 교회와 미주 개혁 교회와의 공동 장애 사역.
www.crcna.org/disability or www.rca.org/disability

주제들 Themes

2013 봄 – 숙소. 이번 호는 장애우들이 독립적인 삶을 위해 필요한 것들인 재정 도전들을, 탐구하는 일들을 다룹니다.

2013 여름 – 오락. 재미를 위해 무엇을 할까요? 장애는 오락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우리 여름호 주제는 장애와 오락입니다. 6 월 20 일까지 이야기들을 보내주세요.

이 메일 주소: mstephenson@crcna.org • tdeyoung@rca.org

관계형 임대, 평생 배당금

by 마크 스트븐슨

CRC 장애 사역부

랄프 부스의 삶은 13 살때 청소년 류마티스 관절염(JRA)을 발견한 후의 첫 6 개월은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이 자동 면역 결핍증은 자신의 연골과 관절 구조, 통증 유발 어려움과 운동에 부기를 갈가먹고 공격했다. 7 살 되던 해에 랄프는 심하게 되어, 그후 4 년간 그는 전혀 움직이지 못했고, 혹 좋은 날에는 자신이 음식을 먹었다. 그는 이를 사막을 지나는 자신의 여정으로 여겼고 그의 삶에서 하나님께 화를 내는 황무지의 시간이 되었었다.

새로운 투약을 한 3 개월 후, 그는 다시 설 수가 있었고, 그의 영적 삶도 변화가 되었다. 자신의 장애상태 때문에 하나님께 향한 분노가 깊은 평화로 주님이 자신에게 향한 영원한 것들을 앓으로 바뀌었다. 그 후에 근

20 번 가까이 연결 교체 수술들을 했지만, 주님께 향한 그의 봉사는 시들지 않았다.

발로 다시 걸어다닐 때, 두 친구가 하숙을 제안해 왔다. 왜냐면 랄프는 가능한 독립적으로 살기를 원했기에, 그는 친구들과 함께 살게 되었다. 4년 후, 두 친구들과 한 콘도를 사게 되어 4년동안 함께 나눠 살았다.

항상, 랄프는 일주에 3 일을 일하고 한편으로 컴퓨터 사업을 하였다. 그러나 그는 자기 삶의 가장 중요한 도움은 “나의 하늘 아버지가 매일 도우신다”고 말한다. 아직 집을 가짐으로 드는 기본적인 돈을 내는 일들, 집안 일들, 눈치우는 것, 전구 가는 일들을 하고 있다. 그는 이런일들을 집주인이기에 한다.

집주인과 세집 사람들은 단순 관계는 아니다. 랄프는 세든 사람들과 함께 하고 있다. 그는 세든 사람들의 의무인 집세를 줄여주곤 하는데:

- * 집안 일들을, 특히 청소년 류마티스 관절염(JRA)을 보호하는 선에서
- * 성경의 존경으 원리안에서 서로 사는 것
- * 삶의 목적들 향해 진행됨을 주기적으로 점검함

(예를 들어, 약간의 집세를 그들의 교육을 위해 예금을 함; 다른 것은 결혼위해 돈을 저축하거나 혹 집을 위한 일시금을 저축함)

랄프는 약 지난 10년간 자기에게 30여명이 세를 들었는데 그들에게 친구나 멘토로 봉사해오고 있다. 누구든지 집새든 사람들과 주인/멘토/친구 관계를 생각하면, 랄프는 (온타리오에 살지만) 여러 충고들을 갖고있다:

- *“자신에게,” 난 내 집을 빌려주며 함께 나눠 사는 것이 편한가? 난 양보하는 맘이 있는가?
- 친구 이상 되기. 기대들을 확실이 나눠라, 남이 들어오기전에, 그리고 어떤 상황에 주인이 필요하면 돼주라.
- 실망을 받아들여라. 우리 모두가(자신 포함) 크리스챤 길과 하나님과 신실하게 사는 것을 인식하라.

편지 Letter

난 여러 나이와 관련된 장애들을 갖고있다 (파킨슨병, 관절, 청각 장애, 왼쪽눈). 난 또 기억력 상실증이 시작되어 이것이 내가 두려워 하는 치매로 이어지지 않기를 기대한다.

난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딸과 사위, 4 명의 손주들의 도움으로 살고 있다. 난 교회를 부축함 받아서 갈 수가 있다. 나의 영적 삶을 위해 난 기독 책자들을 읽지만 성경은 돋보기 없이는 몇분 이상도 읽지 못한다. 난 이 편지를 돋보기를 사용해서 썼고 단어의 잘못됨을 확인 할 수 있다.

난 한 달에 두 세번 물리 치료를 받으며, 한달 한번 정도 치료사들이 주관하는 도움모임에 참석한다. 이것은 나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힘과 깨달음을 주는데, 어떻게 내가 적당한 쉼의 기술을 갖고 힘줄, 목, 척추, 조화와 넘어짐을 면하는 적당한 걸음등 어려운 행동을 하는데 매우 좋다.

난 행동 장애, 정신적 육체적 도전들, 청각 장애 들을 이해하게 됐다. 결과적으로, 수년이 지나 난 위의 문제들을 갖고 사는 집들을 방문하고 있다.

어째튼, 난 신디와 테리가 청각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장애번호에 깊게 헌신함을 존경한다. 큐샥스, 리들스, 룬스와 프란 대니엘스들에게 주님께 항상 의지함을 축하하며; 주님만이 오직 보호자, 도울자며 위로자이시다.

존경을 갖고, 하나님이 축복하며, 다음 ‘장애물 헐기’호도 보내주세요.

—알빈 코디에로, 챈절, 뮤비아, 인디아

메모: 알빈의 글:

“싼 통로들,” (2011 여름, 장애물 깨기) 그는 자신과 다른 사람들이 아주 싸게 사는 창조적인 숙박을 열거했다.

집을 꾸미는 것은 시간이 걸림

by 펨 멘톨

베다니 개혁 교회, 알바니, 뉴욕

좋은 집을 찾는 것은 힘들지만 즐거운 일이다. 보통 장애 갖은 사랑하는 사람의 필요를 “반드시” 맞춰사는 곳이라면 아주 간단해 질 수가 있다. 혹 사는동안 장애자에게 맞춰서 바꿔나갈 수가 있다. 보행은 휠체어등이 갈 수 있는 적은 통로면 가능하고, 혹 미국 장애 법(ADA)에 맞춰나 하는 큰일 일수도 있다-큰 창길, 목욕 길, 계단/의자 오르는 것 혹 엘리베이터 등등. 그 모든 것을 어떻게 감당하겠는가?

우린 집을 오랫동안 찾았다. 다윗 내 아들은 뇌상마비로 전기 휠체어를 사용하며 목욕하는데 도움이 필요하였다. 우린 이런 필요들을 감안하면서 집을 찾았고 목욕탕엔 다른것이 필요함을 알았다. 그의 방은 이층이기에 의자옮기는 기구도 필요하였다.

1990년 중반은 연방정부서 각 주마다 시행하는 메디케이드 면제가 시작되었었다. 장애우들과 함께하는 큰 사무실에서 메디케이드 봉사 코디네이터(MSC)의 도움을 다윗은 받게 되었다. 그들은 “ 걱정마세요. 우린 다윗의 모든 필요를 준비할 것입니다”라는 말을 들었다. 그말은 쉬웠다. 우린 곧 이 기관이 잘 진행되지 않음을 알았다. 힘든 몇개월과 어려운 이야기들을 오가면서 난 다윗의 일을 다른 상태의 사람에게 옮겼다. 그 다음은 자금이었다. 뉴욕주는 예산이 통과 돼지 않아 다시 기다리게 되었다. 우린 자금이 준비되면 곧 바로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서류들 준비하였다.

6개월 후, 통로를 준비되어서 다윗은 더 이상 휠테어를 창고에 놓고 집에 올라가는 일이 없어졌다. 그는 운전해 집에 들어와 일종의 방들을 혼자서 가게 되었다. 그는 혼자 더 많은 일들ㅇ르 하게 되었다.

이 일은 애게 몇가지 교훈을 주었는데, 가장 큰 것은 사랑하는 자에게도 큰 도움이 못된다는 것이었다.

도움 줄 수 있는 방법 찾기

by 댄 디브리스, 영적 도움 코디네이터

호프 헤븐, 록 밸리, 아이오와 주

난 매일 많은 선택하는 일을 좋아한다-일찍 일어날 것인가 더 잘 것인가,
무엇을 입고, 언제·무엇을 먹을까. 난 언제 일 갈것인가, 어디 살것인가 누구와
함께 살건인가 까지.

많은 혼자 사는 기술이 부족한 사람들을 볼때 선택의 기회들을 잘
못해서 갖지 못함을-우리의 다른 기술들 문제가 아니라, 재한된 빌리는
가격들, 바뀌는 규정들이나 자금규정의 법들. 아이오아주와 미네소타주
13 도시에 480 명 장애우 어른들 사는것을 봉사하는 기독교 단체로 위의
도전들을 직면하고 있다.

자금 규정들이 바뀌면, 봉사받던 어떤이들은 원해고 받을 수가
없게되고; 예로, 빌리는 도움이 끊어지는 것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자기
아파트에서 살기를 원하지만 그것은 보통 찾기다 쉽지 않다. 방 두개가
있어도 그리로 가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오직 한 방만 도움받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움직이느 큰 추세는 제도적인 곳에서 공동체의 곳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것은 그들을 더 독립적이거나 자연적 도움들을 가능케하는
것으로-공동체를 든든히하는 관계 유익을 준다. 이 일을 위해 호프 헤븐은
보통 한 사람의 “집”의 가격이 대우받는 숙소의 선택은 낮은 수준으로 하게
된다. 자금 조달의 상소를 하지만 보통 3-6 개월간 걸린다. 이는 개인에게 더
많은 선택들과 독립적인 삶의 방식의 짐을 지우는 것이다.

이런 개인 중심 계획의 일은, 호프 헤븐에선 새로운 규정들의 영향이나,
느림이나 기다림도 줄여준다. 이 개인 중심 계획은 자신이 생각하는 삶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인도 해주는-예로, 개인이 원하는 가정방식으로. 보통
이것은 개인의 가장 정신적 건강을 도와주며 좋아하는 환경이나 선택들을 할
수 있게 더나가 승소가 결정돼기 전이나 지금의 흐름이 나기전에도 움직일 수
있도록 해준다.

호프 헤븐의 목적은 “사람들이 공동체에서 더 나은 삶을 살도록 기술과
일들을 최대한 발휘케 하는” 것이다. 사람들의 능력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은 자기들이 살고 싶어하는 곳을 선택할 수 있다고 믿는다.

편집인의 글 Editor's note

단체-집 연결점들 Group-Home Connections

“ 난 초콜렛 한박스와 휴지 한박스를 가져갑니다,” 우리 딸 니콜의 사회복지사 제니는 우리 위한 좋고 나쁜 일을 말하였다. 니콜을 위한 자금이 그룹 홈인, 하별 하우스 사역집으로 이사함이 승인난 것이다.(니콜은 심한 다증 장애자로 전적인 보호가 있는 아이다.)

그때 니콜은 18살이었다. 우린 드 러인 나이에 이사감을 원치 않았으나, 그녀에겐 여러 이유와 함께 부모을 떠나 사는 가장 좋은것임을 알았다. 이 변동은 첨엔 우리 모두에게 힘들었지만 지금은 그녀가 좋아하고 있다.

보통 사람들은 이런 큰 그룹 홈같은 하별 하우스를 어색해 하지만 사는 사람들은 많은 도움을 받기에 좋아합니다. 교회 근처에가 그룹 홈이 있나요?

여기 몇가지 지교회 목사님들이 하별 하우스에 사는 자들을 위한 팁이 있네요(모두 심한 다증 장애우들로 사는 곳):

- 휴일때 뜨개질이나 치장함
- 예배를 인도 함
- 지적장애우 모임의 멘토로 봉사함
- 청소나 가든일 도움
- 방문자가 적은 자들의 친구 되어주기
- 영적도움이 없은 자들에게 말씀 나눠주기
- 그곳 사람들과 공예하기
- 특별한 날에 사진 찍어주기
- 여름 한날 그들 위한 행사 준비해 인도해 주기

(한 교회는 겨울 올림픽을 동시에 올림픽 게임을 주관 하였음)

교회 근처의 그룹 홈 사람들과 연결하는 것은 당신이 하나님의 일에 중요한 것을 헌신하는 것으로, 그들뿐 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다.

—마크 스트븐슨

© 2013 장애 관심 사역처, 북 미주 개혁 교회와 미주 개혁 교회.

장애물 헐기는 북미주 개혁교회서 학기별로 발간한다.

2850 Kalamazoo Ave. SE, Grand Rapids, MI 49560-0800, and P.O. Box 5070, STN LCD 1, Burlington, ON L7R 3Y8; and by RCA Disability Concerns, 4500 60th St. SE, Grand Rapids, MI 49512-9670.

마트 스즈본슨 목사, CRC 장애우 사무처 디렉터(888-463-0272;
mstephenson@crcna.org)

테리 디영 목사, RCA 장애우 사무처 코디네이터(616-541-0855;
tdeyoung@rca.org)

장애물 헐기를 함께 편집함. 이 자료들은 필요한 대로 사용 가능함.

북 미주 개혁 교회와 미주 개혁 교회와의 공동 협력 사역

www.crcna.org/disability • www.rca.org/disability